

Robert Chisholm 박사, 사무엘 상하, 사무엘 하, 세션 28, 사무엘 하 24

© 2024 로버트 Chisholm 및 Ted Hildebrandt

사무엘상하를 가르친 Dr. Bob Chisholm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세션인 28번째 세션, 다윗이 이스라엘에 재앙을 가져옴,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서 연구를 마쳤으며 사무엘하 24장의 마지막 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이 이스라엘에 재앙을 가져온다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시 행복한 장이 아닙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은 다양한 수준에서 충격을 주고 있으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에필로그의 첫 번째 이야기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은 사울의 죄였고, 다윗은 일종의 왕의 재판관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의 죄는 심판을 촉발할 것이고, 다윗 자신도 죄를 범하게 될 것이며, 다윗은 결국 일종의 왕 같은 제사장이나 중재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에서 죄로 인해 진노하실 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엄중하게 벌하실 수도 있지만, 죄인들이 회개할 때 기꺼이 심판을 철회하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 다윗을 격동하시 그들을 치시며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타올랐다. 이에 대한 이유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임의로 화를 내신 것일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종류의 언어를 읽을 때, 보통, 항상 실제로, 그것이 사용되는 다른 곳에서는 주님께서 진노하실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그것은

인간의 죄입니다. 사무엘서에는 여호와께서 누군가를 향해 진노하시는 곳이 딱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7절에 웃사가 손을 뻗어 궤에 손을 대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진노하시라 그를 치시니라. 그러나 그 경우에 주님의 분노가 타오르는 데에는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구약의 다른 곳에서는 주님의 진노가 그의 백성을 향하여 타오르는 것은 변함없이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을 통해 이 문구를 추적해 보면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와 사사기, 열왕기하,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분노가 누군가를 향해 타오르는 이 모든 경우에서, 흔히 우상 숭배의 형태로 나타나는 노골적인 반역이 바로 이 신성한 진노를 촉발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절 전반부를 읽을 때 이스라엘이 어떤 식으로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방법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매우 이상해 보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는 다윗을 선동하여 그들에게 대항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충동하여 그 나라에 심판을 가져올 일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을 충동하여 가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고 두루 다니며 그의 용사가 몇 명인지 세어 보라고 했습니다. 이 장의 뒷부분에서 다윗 자신이 인정함으로써 다윗은 이것이 최악된 일임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다윗에게 잘못된 일을 하도록 촉구하셨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을 죄로 유혹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일은 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제임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가 사람을 심판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행하기도 합니다. incited로 번역된 이 단어는 구약의 다른 곳에서

흥미로운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 딸 악사가 아버지 갈렙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녀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사용합니다. 딸들이 가끔 하고 싶어하는 것처럼요. 그들은 아빠를 매료시켜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욥기 36장에서는 사람을 유혹하는 재물에 대해 사용됩니다.

또한 많은 텍스트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선동하여 특정 행동 과정을 따르도록 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신명기 13장에서는 선지자가 사람들을 유혹하여 우상을 숭배하도록 부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사탄은 욥기 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도록 선동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주님은 실제로 사탄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동하였느니라. 이 동사를 사용하여 너는 내가 내 종 욥을 대적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것은 거의 하나님에 대한 비난에 가깝습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이 단어의 주어일 때,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사밧인 여호사밧에게서 적을 끌어내시는 것을 긍정적으로 사용합니다. 주님은 원수를 선동하시고, 끌어당기시고, 원수가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설득하셨습니다.

이는 또한 욥기 36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멸망에서 축복으로 끌어들이시거나 구애하시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엘리후는 그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말 누군가를 설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선동해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일환으로 진노하셔서 다윗을 설득하여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공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논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때때로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결정하십니다.

그것은 모두 그의 정의의 일부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역대상에 나오는 평행 본문을 찾아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역대상 21장에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조금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1장 1절에는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게 했다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분노나 그와 유사한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사탄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의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사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결국 이 단어가 사탄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사탄이 사용될 때 사탄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모두 대적자, 원수뿐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서 정관사 없이 사용되면, 즉 하가 아닙니다. 하(Ha)는 히브리어로 정관사이다. 대적 하사탄이 아닙니다.

바로 사탄, 대적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다른 곳에서 관사 없이 이 단어가 사용되면 사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적을 가리킨다.

발람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여호와와 사자가 대적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 본문에서는 그는 적이라고 불렸습니다. 구약에서 사탄이 언급될 때, 그는 구약에서 자주 언급되지 않을 때 관사가 사용됩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 그는 하사탄이다. 그는 적입니다. 제목이에요.

이는 사탄이 언급되는 스가랴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구약성서의 용법에 따르면 역대기는 단순히 대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모압 사람들, 에돔 사람들, 또는 어떤 종류의 인근 사람들이 다윗을 선동하여 인구를 조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것을 사무엘하 24장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무시하고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척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사무엘 본문과 역대기 본문을 함께 가져와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다윗을 충동하사 그들을 치게 하셨느니라 역대기 본문을 가져오면, 그는 근처의 대적 다윗을 선동하기 위해 그것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역대기를 고집한다고 해도 역대기가 상대적으로 늦은 반면, 그때쯤이면 사탄이 고유명사로 사용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유일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탄이 다윗을 선동하는 데 있어서 그의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대기 첫째 구절을 어떻게 하든 사무엘하 24장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고 다윗을 격동시키셨습니다. 사무엘은 사탄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탄이든, 아니면 인간의 적이든, 연대기에서 제가 선호하는 것은 단순히 도구일 뿐입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왕이 요압과 군대에게 이르되 너희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용사들을 모집하라 나는 그 수가 몇 개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라 요압은 즉시 이 사실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군대를 백 배나 더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큰 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많이 태어나서 군대의 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 왕의 눈이 그것을 보게 하소서.

그런데 나의 주 왕은 왜 그런 일을 하려 하십니까? 왜 이런 일을 하려는 걸까요? 그리고 나는 그것이 믿음이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즉, 나는 안전을 위해

주님을 신뢰하지만 골리에서는 그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군인이 몇 명인지 보고 싶어요.

그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보는 것으로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매우 사울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왕의 말이 요압과 군대 지휘관들을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용사들을 등록하기 위해 왕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들이 온 땅을 두루 다니며 북쪽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방법에 대해 읽었습니다. 그리고 온 땅을 다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데는 9개월 20일이 걸렸습니다.

요압은 군사들의 수를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에서도 그 수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보면, 다윗이 군사들을 계수한 후에 양심에 찢려 마음이 찢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행한 일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일환으로 이 일을 하도록 그를 충동하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 이제 청컨대 주의 종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매우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전에 사울이 사용했던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했듯이 다윗은 여기서 약간 사울처럼 보입니다. 다음 날 아침 다윗이 일어나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갓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갓이 그림 속으로 들어가니 그가 이르되 가서 다윗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고 전하라.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선택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행할 것 중 하나를 선택하여라. 내가 보기에선 주님께서 여기서 용서를 구하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는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갓은 다윗에게 가서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옵션을 제시합니다.

너희에게 삼년 흉년이 들겠느냐?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본문에는 7년 기근이 있습니다. 70인역은 3번으로 번갈아 읽혀지지만, 내 생각에는 70인역은 다음 두 가지 옵션에 사용되는 숫자에 숫자를 일치시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여기서는 7이 원래의 읽기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땅에 칠년 기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적들이 너를 쫓아오는 동안 석 달 동안 도망쳐야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울이 석 달 동안 적들에게 쫓아다니던 것처럼 다윗도 당신을 쫓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국가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추격을 당할 정도로 취약한 위치에 있다면 그것은 국가가 침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이스라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네 땅에 사흘 동안 역병이 닥칠 수도 있다. 우리는 이 일을 빨리 끝낼 수 있어요.

우리는 매우 심각한 전염병, 파괴적인 전염병을 겪을 수 있습니다. 3일 동안만 진행되며, 끝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에게 내가 어떻게 대답할지 결정하여라.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다윗을 그냥 용서하시고 그 돌을 깨끗이 닦아 주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범한 죄라기보다 이스라엘이 범한 죄가 애초에 주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다윗을 처벌하시는 것은 단지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징벌하실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14절에서 갓에게 내가 심히 고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자비가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손에 빠지자.

그러나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David가 두 번째 옵션을 배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적, 인간의 적에게 쫓기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은 크신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차라리 주님과 직접 거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기서 신성한 감정을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비의 느낌입니다.

그것은 한 형제가 다른 형제에 대해 느끼는 감정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이것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대하는 마음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의 용서를 구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주님의 자비가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과 직접 거래하고 싶어요. 그분은 자비로우실지 모르며, 우리에게 형량을 줄이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내 생각엔 데이빗이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David가 나는 두 번째 옵션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인간의 도구를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기근이나 전염병으로 가자.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재앙을 택하셨습니다(15절).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날 아침부터 정한 때까지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라는 대체 읽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지 3일 동안의 재앙 중 첫째 날입니까, 아니면 재앙 기간 내내 일어난 일을 요약한 것입니까?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사람들 중 70,000명이 죽었는데, 북쪽에서 남쪽까지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파괴적인 전염병, 일종의 질병 또는 방금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한 모든 것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손을 내밀때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확대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라 전염병의 시대가 이미 끝났다면 이는 지나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15절을 읽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16절 후반부터 시작되어 플래시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사흘 동안 땅을 황폐시켰고 이제 주님은 말하자면 예루살렘을 마치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런 다음 재난에 대해 마음을 누우치시고 천사에게 손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b절부터 우리는 플래시백을 통해 주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이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데이비드가 옳았습니다.

글쎄요, 저는 주님과 함께 기회를 잡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비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b의 플래시백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루나의 타작마당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천사를 보았을 때, 다윗은 여호와의 파멸의 도구인 여호와의 천사가 여기서 백성을 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 목자가 잘못을 하였느니라. 이들은 양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나요? 당신의 손이 나와 내 가족 위에 있게 하소서. David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국가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대로 1절로 돌아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일차적인 대상은 바로 그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를 화나게 한 것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다윗과 관련된 일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David의 관점은 여기서 제한됩니다. 그 날 갓이 다윗에게 가서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루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며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말하기를 네가 네 죄를 자백하였으니 제단을 쌓으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갓에게 명령하신 대로 올라갔습니다. 아루나가 보다가 왕과 그의 신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오는 것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루나가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그 종에게 임하셨나이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의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하노라 하니 그래서 다윗은 백성을 위한 중보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갓은 지시한 대로 여기 아루나의 타작마당에서 그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21절에서는 재앙에 대한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전 단어는 전염병의 파괴적인 성격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전 구절에서 사용된 것과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데버입니다. 그리고 이 용어는 사무엘상 6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되찾았을 때 그들을 괴롭힌 전염병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구절에서는 인간의 대량 학살을 더 많이 묘사합니다. 따라서 이 용어는 전염병으로 인한 인간 생명의 대량 파괴에 관심을 끄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다른 용어는 처벌로서 전염병의 징벌적 성격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로서의 전염병. 이것은 대량 살상의 재앙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 대량 살상이 멈출 수 있도록 백성을 대신하여 중재할 수 있도록 주님께 제단을 쌓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루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내 주 왕께서는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번제에 쓸 소가 있고, 불을 피울 땀감을 위한 타작 썰매와 소 멍에도 있습니다. 폐하, 아루나는 이 모든 것을 왕께 바칩니다.

아루나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Arunah는 David에게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데이빗은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을 지불할 것을 주장한다. 나는 값없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에 나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약간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유인물을 받지 않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타작마당과 소들을 사서 은 50세겔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David는 여기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이 그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16절에서 주님께서 천사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에 대한 배경 이야기를 제공하고 공백을 메우며 그것이 말하자면 다윗이 왕의 제사장으로서 행한 일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 기록을 얻습니다. 그는 백성을 대신하여 중보했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그치게 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사람들을 위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여기서 나타나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때때로 매우 가혹합니다.

죄인들이 용서를 구하더라도 여기서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밋세바 사건을 어느 정도 반영합니다. 다윗은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지만 여전히 죄로 인한 고통스러운 결과를 겪었습니다.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학살한 뒤에야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분노하고 기만적인 신의 모습은 극도로 무섭다. 그것은 독자로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어들이는 경향이 없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반응에서 처음에 의롭다고 가정한다면, 특정 진리가 분명해짐에 따라 신성한 관점이 우리 관점을 대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며,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인들을 처벌하시는 것이 완벽하게 정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전에서 읽는 것보다 더 자주 그런 가혹한 심판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인내와 자비에 대한 교훈입니다.

다윗이 이야기 중간에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하나님을 대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도 다윗은 자비라는 주제를 꺼냅니다. 그리고 죄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일으키는지를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아들에게 쏟아부어진 일에 대해 더 큰 감사를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고통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글쎄, 당신이 육체적 고통에서 보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스스로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보는 잔인함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예수님에게 심판을 쏟아 붓고 계심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현실을 실제로 이해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해야 할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년 주 박람회에서 전도를 합니다. 나는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그들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과 그들이 하나님의 표준을 어겼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눈에 죄인이며 하나님의 형벌 외에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기 전까지, 당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아무 가치도 없는 죄인으로 볼 때까지, 당신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형벌, 곧 죄에 대한 형벌을 스스로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구절은 두렵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상기시켜 주는 좋은 구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원리는 주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시며 죄인들이 그분께 올바르게 접근할 때 기꺼이 형벌을 완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는 다윗의 고백과 용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처벌이 와야합니다. 그는 David에게 어떤 옵션을 선택할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거기에는 실제로 약간의 자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하고 다윗은 심판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자비를 구했지만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며 그의 심판을 그 도시에 온전히 쏟아 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성서 애가 3장의 다른 곳에서 이 찬송을 볼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은 이름을 가진 Thomas Chisholm은 '주의 충실하심은 위대하시도다'라는 찬송을 썼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자비가 보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애가 3장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애가서를 읽으면 예루살렘 멸망의 여파로 하나님께 드리는 애가입니다. 심판과 죽음의 광경과 소리에 둘러싸여 생생하게 묘사된 저자, 어쩌면 예레미야는 애가 3장 22절에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그분의 긍휼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비록 슬픔을 가져오실지라도 긍휼히 여기시니 그분의 인자하심이 이토록 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쏟아부으셔야 할 때에도 우리는 그분의 긍휼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호세아 11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휘장을 걷어내시고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호세아 11장에서 그는 자신의 아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그 아들을 돌보던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옛날을 회상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바알 우상을 쫓았으며 그들의 우상 숭배는 호세아서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에게서 돌아섰고 주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바알을 숭배하고 그가 당신의 축복의 원천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둘 수 없습니다.

판단을 통해 여러분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호세아 11장에서 이 심판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조가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 타락한 백성들에게 심판을 부어주실 때, 그의 마음은 그 안에서 변화됩니다. 그에게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동정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자신의 판단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멀리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연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때때로 분노에 눈이 멀곤 한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쏟아 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는 그의 사람들에게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동정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심판을 쏟아 붓는 가운데 그분은 자비로 분노를 멈추고 누그러뜨리실 수 있습니다. 그는 인간과 달리 감정을 완벽한 균형으로 유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제를 구약의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무서운 구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시고자 하는 심판에 이르지 못하여 그의 동정심을 나타내시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애가 3장에서 예루살렘 멸망의 여파 속에서 그 연민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호세아 11장에서 그것을 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감정의 갈등을 우리와 공유하십니다. 그리고 탕자를 낳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확실히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동시에 연민도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사무엘서에 대한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것을 보람있는 것으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앞으로의 성경 공부에서 그 본문을 계속해서 다시 읽을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성경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본문은 한 번 이상 읽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새로운 것, 즉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 우리가 그분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발견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공부를 즐기셨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며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동정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대하신 주권자 하나님으로 예배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한 당신은 용서를 베풀고 당신의 심판을 전면적으로 내리지 않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심을 이해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분을 통해 여러분과 관계를 맺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윗에 관해 많은 것을 읽었으며, 장차 오실 이상적인 왕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궁극적으로 인류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실 분이십니다. 당신을 위해 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하를 가르친 Dr. Bob Chisholm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세션인 28번째 세션, 다윗이 이스라엘에 재앙을 가져옴, 사무엘하 24장입니다.